

나주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국도비 452억 원 확보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 94억 원 추가 확보

주택, 소상공인, 농가 지원금 확대... 최대 1천만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 7월 기록적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584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국도비 452억 원을 확보해 항구적인 재해예방과 시민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전체 사업비의 약 77%를 국도비 지원금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시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주택, 상가, 농가 등 침수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본존천 등 재해 취약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359억 원 규모의 개선복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나주에는 최대 542.2mm(금천면 기준)의 폭우가 쏟아

야져 사유시설 74억 원, 공공시설 79억 원 등 총 1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 나주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고 지원금이 당초 285억 원에서 94억 원 늘어난 379억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본존천 등 3개 개선복구 사업에 359억 원이 반영돼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재해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나주시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건의한 결과이자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해 현장 방문 시 윤병태 시장의 직접적인 요청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재난지원금



도 대폭 늘었다.

침수 주택 53가구는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배 늘었으며 소상공인 58건은 기존 300만 원 외에도 전남도도 구호기금 200만 원, 위도금 500만 원이 추가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농가 지원도 확대돼 농작물, 가축 입식비 지원율은 50%에서 100%로 늘었고 농

가계 복구비는 35%에서 50%로 상향됐다.

대파 피해 농가 생계비 지원 기간도 일 반작물 3개월, 원예 및 축산 6개월, 과수 12개월까지 확대된다.

나주시는 추석 전 시민 생계 안정을 위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0억 원을 예비비와 성립 전 예산을 활용해 9월 중순까지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강진군, "선택과 집중" 군민 체감 예산 편성 돌입 군민 중심 예산 강조하고 실무 능력 높여

강진군이 「202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 교육」을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별 회계담당자 및 신규직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2026년 지방재정운영 여건 △2026년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 사항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회계담당자 및 신규 직원들을 위해 △예산의 종류, △예산의 원칙, △이월예산, △예산의 변경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지방 예산 실무 교육도 병행해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군은 내년에도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재정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비는 '실제-보상-공사의 단계'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이월액 규모를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 부서에 전달해 선심성 사업, 중복 또는 유사 사업, 효과가 미미한 사업 등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군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군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강진원 군수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특히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예산을 우선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설명회 이후 예산 요구 및 심의·조정,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거쳐 법정 제출 기한인 11월 21일까지 강진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이 회원 수 5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개장 1년 만에 3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4개월 만의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난해 4월 말 개장한 맛플무안몰은 무안에서 생산된 쌀, 양파, 고구마, 김, 한우 등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합리적

'맛플무안몰' 전국적 인기 속 회원 5만명 돌파 쾌거

인 가격에 제공하고 다양한 온라인 기획 전 개최와 찾아가는 현장 홍보활동을 펼쳐 군민이 정성껏 키운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양파수급 안정대책으로 추진한

무안양파 소비촉진 기획전은 총 190톤, 3만 3천 건의 주문이 이어져 신규 회원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전국적인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맛플무안몰은 단기간에 회원

수 5만 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맛플무안몰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소비자 여러분께서 무안 농특산물을 믿고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무안 농특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함평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성료

전남 함평군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함평군은 3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지난 2일 군민과 공직자 등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교육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선순환 전문가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참석자의 이해를 높였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성평등 인식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곡성군, 전통시장 장바구니 사용하기 캠페인 실시

곡성군은 지난 3일 '제17회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앞두고, 9월 3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바구니 사용하기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군 관계자들과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회원 등 50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통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홍보 현수막 게첨과 장바구니를 배부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조상래 곡성군수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며,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여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곡성을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담양군 공직자들, 민원 현장 대응력 높인다

담양군은 2일 담빛농업관 대강당에서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특이·약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찾아가는 특이민원 대응 교육'과 연계한 것으로, 민원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론 강의를 비롯해 관련 정책 및 제도 안내, 실제 사례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질의응답 및 고충 상담 등 현장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원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박이슬 강사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담양/이종욱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